



전북도가 2015년 8월 '도' 단위 최초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 이후, 최단시간 내 연구소기업 100호를 달성한 가운데 4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북특구 연구소 100호 돌파 기념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신규 연구소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성공비즈니스의 시작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100호' 돌파
연평균 증가율 매출 192% · 고용 253% 성장

전북도가 2015년 8월 '도' 단위 최초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 이후, 최단시간 내 연구소기업 100호를 달성했다.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혁신기업 모델인 연구소기업 100호의 설립은 전북도의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제·지방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설립이전 단계에서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특구에서 100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주)카이테크는 자동차용 모터제어기에 적용하는 친환경 제어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북대 학연합기술지주에서 설립한 연구소기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향후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기업이다.

그 동안 전북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2015년 11월 출범과 동시에 3개를 시작으로, 2016년 19개, 2017년 29개, 2018년 23개, 2019년 10월말까지 26개가 설립되어, 타 특구 대비 최단시간 내 100호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특구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육성지원 노력에 힘입어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속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확대와 같은 질적 성과와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신드론은 모기업 (주)셀셀을 역 인수 합병(2018년 6월)해 국내 최대 규모 드론업체로 성장했으며,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을 통해 설립 4년 만에 매출액 166억원 달성했다. 전북도 1호 연구소기업 (주)카바이오텍은 새로운 항암치료 기술로 기술성 및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창투사로부터 총 50억원을 투자했다. (주)넥스스비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특구펀드로부터 5억원 투자유치 및 국내 상장사와 해외진출·인프라 협력 등 전략적 파트너

십을 구축했다. 연구소기업은 2018년 총 매출액이 655억원, 고용인원 36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3년(16~18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92%, 고용 증가율은 253%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도와 전북특구본부는 이번 100호 연구소기업 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하의 의미로 4일 오후 2시 30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고, 연구소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연구소기업의 발전 방향과 현장의 해결방안 등을 찾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1호부터 100호 연구소기업까지 하나 하나 모든 기업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들 기업이 전북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구 서동경 본부장은 "역량있는 연구소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내실화를 기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연구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전북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최상의 방위태세 다짐

전북도는 4일 오전 11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제4차 전북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해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2019년도 마지막 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된 이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국가적 비상사태와 재난을 대비해, 2019년도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성과

보고와 2020년도 계획을 35사단, 경찰청 순으로 보고하고, 2020년도 민방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민방위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민방위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지역특성 및 사회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다양화와 집합·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실습형 실전

교육 확대하고, 민방위 훈련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 전국 동일 훈련에서 탈피하여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맞춤형 훈련으로 내실화를 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에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매년 대규모 행사가 전북도내에서 계획돼 있으므로 성공적이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어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장외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회원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어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정	중, 고등반, 초등, 유치반 (차량운행)
구	취업면접반(개인지도)
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목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 우석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 1호 지도자
· 기관, 단체 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전주, 완주, 진안(전주에서)
남원, 장수, 순창지역(남원에서)
군산, 부안지역(군산에서)
김제, 완주지역(전주에서)
익산지역(익산에서)
정읍, 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 · 면접 · 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국가예산 7조원 시대 이어가기 위한 국회 집중 공략

우범기 정무부지사,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중점사업 예산 반영 요청

전라북도는 국회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를 찾아 연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예산정책협의회와 30~31일 도지사, 31일 행정부지사의 국회 국가예산 활동의 배턴을 이어받아, 이날 4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한해의 명운이 걸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쟁점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범기 부지사와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위원들과 1:1로 만나 도정의 주요 핵심 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독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에게는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부두 2선식 동시개발 축조비 78억원을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913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252억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홍의락 의원을 만나서는 한국 유학과 실학의 증심지 전북에 전라유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시설계약비 5억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과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북 중소기업

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차 단속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지대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비품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지역주민이 초기에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차는 유사시 화재진압의 지연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다”며, “겨울철 화재가 집중되는 만큼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차를 단속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소방본부,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

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겨울철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일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준비는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겨울철에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용수 시설의 파손이나 고장을 사전에 점검하여 유사시 원활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며, 점검 대상은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7113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1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사용 시 장애요인 사전 제거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제거 ▲소방용수시설 표지 정비 ▲소화전 관구 등 관리상태 확인 ▲도색 불량시설 정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점검기간동안에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차 근절을 위해 및 소화전 주변 50이내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 신고 하는 등 소방용

이낙연 국무총리, 대기오염 대응 위한 동아시아 협력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영국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톤의 '기후변화야말로 세계가 경험한 가장 막대한 시장 실패' 발언을 인용하며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심각성을 말로 표현하는 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운을 폈다.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가동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확정 ▲재생에너지 비율 제고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 정부 환경 정책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 협력은 불가결하다. 대기 흐름에 국경이 없다면, 그 대응도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동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을 촉구했다.

아침정대기 파트너십처럼 대화 협력 기반은 마련됐다. 행동이 따르면 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연구와 정보를 공유해왔다. 한국 계절관리제도 중국과 협력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한국과 몽골도 일정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